

57년 생물학회 개편때 분리 탄생 한국동물학회

1945년 설립된 조선생물학회가 57년
한국생물과학협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산하조직으로 한국동물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8백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동물학회는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金學烈

〈한국동물학회 회장/고려대 생물학과 교수〉

한 국동물학회는 1945년 12월, 생물학관
련학회로 처음 발족된 조선생물학회로
부터 출발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도봉섭선
생이 취임하였고 2대에서 5대까지(46년
~49년) 정태현선생이 회장직을 맡았으며
50년 한국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51년
부산에서 우장춘선생이 6대 회장이 되었으
며 이때 조선생물학회를 대한생물학회로 개
칭하였다. 7대에서 11대(52년~56년)까지
는 김호직선생이 회장직을 맡았고 56년에는
처음으로 생물학회보(Korean Journal of
Biology)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57년 대한생물학회가 한국생물과학
협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산하에 한국동
물학회와 한국식물학회를 두게 되었다. 이
때에 한국동물학회의 회칙이 제정되고 초
대회장에 조복성(고려대)교수가 취임하였
다. 그 이듬해인 58년에 동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Zoology)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연 2회 발간하게 되었다. 67
년에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학회 산하에 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위원장을 서울대 강영선
교수가 맡았다. 68년부터 동물학회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발간기로 하고 81년에
는 본 학회의 기구명칭중 서무간사를 총무
간사로, 회계간사를 재무간사로, 편집간사
를 학술간사로 개칭하고 편집위원회를 학
술위원회로, 재정위원회를 기금위원회로
변경하였다.

84년 학회 「뉴스레터」 창간

학회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84년부터 「한국동물학
회」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고 이때부터
연 2회 발간기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학
술위원회를 학회지 편집위원회, 뉴스편집위
원회 및 학술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전문화시

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업활동으로는 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동물명집① 척추동물, 한국동물명집② 곤충, 한국동물명집③ 무척추동물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59년에서 77년에 이르기까지 정문기, 조복성, 김헌규, 최기철, 원병희, 백갑룡 및 강영선박사의 회갑기념호를 발간하였으며 또한 석주명, 조복성, 이덕상, 최상박사의 추모호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많은 특별강연과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59년 고려대 김창환교수가 '영국 동물학계의 동태'라는 연제의 발표를 시작으로 95년까지 39번을 실시하여 동물학분야의 연구시야를 넓히고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동물학분야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을 소개하면 지면관계상 주로 학회 회장을 역임한 분을 기준으로 볼 때 먼저 조복성박사를 들 수 있다. 이 분은 초대 한국동물학회 회장으로서 한국 생물학계의 원로 곤충분류학자이였으며 고대 교수로서 고려대학교에 곤충학분야를 특성화시켰다. 다음으로 서울대의 강영선교수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은 해방후 서울대 교수로서 이학부에 생물학과를 창설하였다. 또한 한국생물학회와 한국동물학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포학, 유전학분야를 개척하였다. 3차에 걸쳐 본 학회 회장과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본 학회기금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김창환교수는 고대 생물학과 교수로서 조복성교수와 함께 고대에 곤충학분야를 발전, 특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한국자연보존사업에 활약하였다. 김훈수교수는 서울대에 봉직하면서 동물분류학 특히 한국 갑각류 분류에 공헌하였다. 또한 이 분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후 한국동물분류학회를 창설, 발전시켰다. 정용재교수는 본회와 한국생물과학협회 회

장을 역임하면서 초파리집단 유전학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조완규교수는 서울대에 봉직하면서 생식발생생리학분야를 개척하였고 서울대 총장,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하여 공헌한 바 컸다. 최임순교수는 본 학회 회장과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학회장 재임시 학회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두봉교수는 서울대 교수로서 특히 계배근세포 분화에 관한 연구를 계기로 세포분화연구센터를 설립, 초대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강만식교수는 서울대 교수로서 동물생리의 물리학적 해석 연구에 착안, 한국생물물리학 분야를 개척, 발전시켰다.

회원 8백여명...3개학회 공동학회지 발간

한국동물학회에는 운영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뉴스지 편집위원회 및 기금위원회가 있고 약 8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회지인 「동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Zoology)로서는 국제적 수준으로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해서 한국유전학회와 한국동물분류학회와 함께 3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작년부턴 SCI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지의 명칭도 「KJBS」(Korean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로 정하고 금년 3월 말에 통합후의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다. 학회지 이름이 말해주듯이 논문내용은 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식물과 미생물을 재료로 분류학, 형태학, 생태학, 생리학, 세포학, 발생학, 유전학 및 생화학, 면역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내외의 명망있는 분을 편집인으로 두었다.

또한 학회 사무실과 통합학술지 사무실이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내에 설치되어 있고 전문사무원을 고용하고 있어 학회운영의 전문화와 통합학술지의 SCI 등재를 목표로 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면 교육부나 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이 SCI에 등재된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학회지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회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확대가 필연적인 만큼 현재 2차 기금모금을 전개중에 있기 때문에 기금이 확충되면 학회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믿는다.

인접학회로서는 호수 속의 동물을 연구하는 이들의 모임인 한국육수학회가 67년에 설립되어 온천, 호수, 상수도 수원, 기수역 하천의 어류, 플랑크톤 및 수질 등의 생물과 화학적인 연구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고 또한 생물교육에도 관심을 보여 68년에 「한국동물학회지」 뒷부분에 부록 형식으로 '생물교육'이라는 뉴스레터를 신기 시작하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72년에 한국생물교육학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또한 60년에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취지에 찬동하는 국내의 생물학자 및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63년에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으로써 국토보존, 국립공원 지정의 자문, 자연보호를 위한 연구활동 및 학술강연을 실시하였는데 이 학술조사위원회는 65년에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개칭되었고 한라산, 홍도 및 설악산의 종합학술조사를 필두로 하여 국내의 자연을 조사하였으며 66~67년에는 미국의 Smithsonian Institute와 공동으로, 그리고 72년에는 문화공보부의 후원으로 국내학자들만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생태계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매년 봄·가을에 학술대회

한국자연보존위원회는 69년에 사단법인인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바꾸고 74년에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6년에 한국생태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동물계는 매우 다양하므로 동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분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의 각 분야를 공부하는데에도 분류학적 지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분류학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을 위한 전문학술지와 관련출판물의 보급이 요청되어 84년에 한국동물분류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60년대 이후 유전학이 세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전학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 분야의 국내연구자들이 학문적 교류를 위해 모임 필요성을 인식하고 78년 한국유전학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물학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초기의 생물학회가 동물학회와 식물학회로 나뉘고 여기에 미생물학회가 추가되어 한국생물과학협회 산하에 3대축이 형성되었고 그 후 앞서 열거한 한국육수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및 한국유전학회가 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협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봄에는 학회가 단독으로 또는 동물학회의 경우 한국유전학회와 한국동물분류학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이 모든 학회가 한국생물과학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동물학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협회 산하에 들어있지 않은 학회로서 한국분자생물학회, 한국생화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근층학회가 있고 이외에 한국발암성돌연변이학회 및 한국발생과학학회 등이 있다. ⑤7